30호 2020년 05월 15일
발행인:안창섭 / 편집인:김동석 / 편집:박시은 / 편집디자인:실크로드 인도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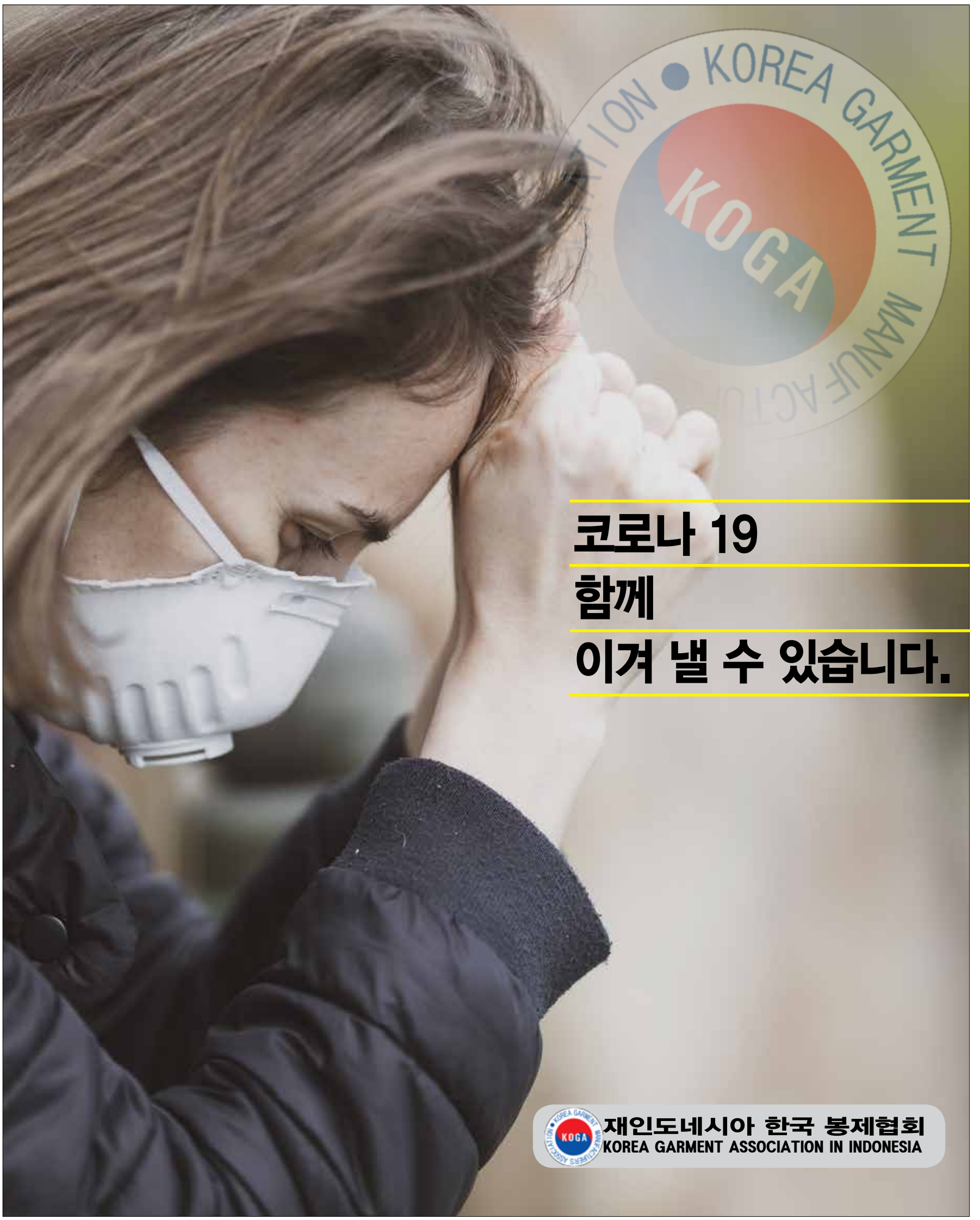
Tel. : 021-3002-9090 E-mail : kogaindonesia1@gmail.com 광고문의 : 0858 9060 0962
Add: komp. Graha Cempaka Mas Blok A No. 11, Jl. Letjen Suprapto, Jakarta Pusat

KOGA는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인도네시아 노동부를 통해 마스크 만장을 기부했다

한국 봉제산업을 선도하는

KOGA 등 志

Vol. 30



코로나 19
함께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KOREA GARMENT ASSOCIATION IN INDONESIA

코로나 19... 함께 이겨내자! KOGA , 코로나 19 사태 관련 숨가쁜 대응

▲ KOGA 안창섭 회장의 노동부 마스크 전달기념촬영

누구도 겪어보지 못햇던 코로나 19로 인해 봉제업계는 타 업종에 비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벌써 5개월간 중국을 시작해 한국, 미국, 유럽의 확진자 폭증으로 세계경제가 마비상태이고 이제 인도네시아에도 수많은 확진지가 연일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부터 시행 된 사회적 거리두기 (PSBB)로 정상적인 근무와 일상이 경직되고 있는 가운데 재인니한국봉제협회(회장 : 안창섭)의 많은 회원사 역시 심각한 경영난과 어려움에 처해있다.

한편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KOGA는 안창섭 회장을 중심으로 KOGA회원사를 위한 숨가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지난 27일 코로나-19로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위해 노동부를 통해 마스크 만장을 KOGA 안창섭회장이 Anwar 노동부차관에게 직접 전달, 기부하면서 KOGA의 어려운 상

황을 전달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상호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기도 했다.

또한 PSBB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투자청장이 한세실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와 어려움을 직접듣고 그 대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리고 안창섭회장은 투자청을 직접 방문해 현 코로나사태로 인한 한인봉제기업의 실태에 관한 논의를 했다.

그 끝이 안보이는 어려움이지만 KOGA는 회원사의 힘든 상황을 함께 타개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

또꼬삐디아, 91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

인도네시아 최대 전자상거래(EC)사이트 운영기업 또꼬삐디아(Tokopedia)는 2일 고객정보가 유출됐다는 주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 9,1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3일 현지 언론 꼼빠스 등에 따르면 정보보안업체 언더 더 브리치(Under the Breach)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커로 보이는 익명의 개인이 2020년 3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해킹해 또꼬삐디아 사용자 1,500만명의 개인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고객들의 이름과 생일, 이메일 등을 찍은 스크린샷을 공개했다. 또꼬삐디아 측은 3일 해커가 암시장에서 또꼬삐디아의 9,100만명의 개인정보를 5,000달러에 판매할려 했다고 밝혔다.

또꼬삐디아의 대변인은 "누군가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말하며 "암호 및 거래 정보,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신속대응팀, 통합데이터관리시스템 BLC 구축

인도네시아 코로나19 신속대응팀은 통합데이터관리시스템(BLC, Bersatu Lawan Covid-19)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꼼빠스 4월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신속대응팀과 군, 경찰, 재난방재청, 국가정보부, 정보통신부 등과 협력으로 구축한 BLC는 전국 병원과 보건소, 실험실, 보건청 등의 정보를 통합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관리한다.

코로나19 신속대응팀의 도니 팀장은 "코로나19 관련

공식홈페이지(covid19.go.id)에서 코로나19 현황 및 정보를 공개한다. 전국 모든 지역의 데이터를 통합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상세하고 정확할 것"이라고 말하며 "핸드폰에서 BLC 앱도 다운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꼬위, 르바란 연휴 12월서 7월로 재변경 방안 검토

인도네시아 코로나 사망자 864명…" 백신 나와야 해방"

인도네시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4일 395명 추가돼 총 1만1천587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하루 만에 19명이 늘어 총 864명이 됐다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동남아시아에서 확진자 수는 싱가포르가 1만8천여명으로 가장 많지만, 치명률(확진자 대비 사망자)은 인도네시아가 7.45%로 가장 높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가령, 필립 모리스 담배회사가 소유한 동부자바주 수라바야의 삼포르나 담배 공장에서는 63명의 근로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2명이 지난달 24일 사망했다.

인도네시아 정부 코로나19 신속 대응팀을 지휘하는 도니 모나르도 국가재난방지청(BNPB) 청장은 이날 "백신이 나와야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계 장관들은 조꼬위도도 대통령께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했다"며 "예전처럼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꼬위 대통령은 오는 6월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여 7월에는 일상생활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사태 완전 종식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속해서 경제·사회활동을 제한할 경우 폭동 가능성이 있기에 고민이 크다.

일단, 조꼬위 대통령은 올해 12월로 미룬 르바란(이둘 피트리) 연휴를 다시 7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이날 지시했다.

이슬람 신자가 인구의 87%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는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하는 한 달간의 라마단이 끝나면 르바란이라는 최대 명절을 즐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르바란 기간 감염자 폭증을 우려해 이달 26일~29일로 예정된 르바란 연휴를 12월 28~31일로 변경했다. 이를 다시 7월 말로 앞당겨 이둘 아드하(희생제) 휴일과 묶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달 23일 라마단 시작과 동시에 자카르타 수도권 등 거주민의 고향 방문을 전면 금지하자 민심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꼬위 대통령은 "(7월로 앞당기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실행된다면 지역 사회에 약간의 평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산업부, 제조업에 19개 지원책 추가 계획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제조업 부양책으로 새로운 지원 방안 19개를 추가할 계획이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4월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산업부의 아마드 시깃 비서관은 "국영 가스 PGN에서 가스 구입시 환율을 1달러당 1만 4,000루피아에 고정, 종교축일상여금(THR) 지급 위한 대출 지원, 특정 산업의 전기 요금 감액, 원자재 수입이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 간 조정, 4월부터 6개월간 오후 10시~오전 6시 전기요금 할인, 플라이 애시와 바텀 애쉬를 '유해·독성·위험(B3)물'에서 제외, 다른 나라를 참고해 폐수 기준 재검토, 코로나19 영향이 줄어들때까지 원자재 수입 허가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한국산 K-방호복’

다이텍, 부직포 대체 패브릭 타일 개발 미국 수출

대한민국의 ‘코로나 19’ 진단키트가 세계로 수출된 가운데 이번에는 ‘방호복’이 세계의 문을 열었다. 각국의 병원에서 마스크와 방호복 등이 부족한 가운데 한국의 섬유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손을 잡고 대체 소재를 개발해 수출을 완료한 것. 앞으로 미국 외 해외 각국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원단이 세계를 휘어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이텍연구원은 지난 18일 ‘패브릭타임’과 함께 병원 방호복에 쓰이는 부직포를 대체하는 레벨 3 수준의 직물 원단 50만 야드(457.2km)를 미국 뉴욕주에 있는 병원복 제작 기업에 수출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

또한 레벨 4 인공혈액침투저항성 시험을 통과한 상태이고 부직포가 아닌 직물 원단이라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세계가 부직포 공급 부족 사태 (위생제품 시장폭증)

이번 수출은 생산자와 바이어가 직접 만나 샘플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등의 기존 방식과 달리 ‘비대면 수출’ 성공사례이다.

다이텍 관계자는 “미국 뉴욕주 병원복 제작 기업에서 패브릭타임 측으로 급하게 원단 개발을 요청해왔다”며 “패브릭타임이 이와 관련해 우리 연구원과 손잡고 대체 소재를 개발, 계약에서부터 납품까지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패브릭타임은 동대문 원단을 DB화하여 온라인 플랫폼 ‘스와치온’을 통해 해외 패션 디자이너에게 판매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이 기업은 미주와 유럽 등 58개국 해외 패션 디자이너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회사 측은 미국 기업의 요청에 대한 해답을 다이텍연구원을 통해서 찾아냈다. 대구에 자리한 다이텍연구원은 섬유염색에서부터 가공, 신섬유 기술개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연구기관이다.

다이텍이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미국의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대체 원단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을 일찍부터 테스트베드와 데이터관리 등에 투자해온 덕분이다.

사회보장기관, 산재보상, 사망보장 보험료 90% 감액 계획

인도네시아 사회보장기관(BPJS)은 1일 회사가 매월 납부하는 직원의 산재보상(JKK)과 사망보장(JKM)의 보험료를 3개월간 90% 감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지 언론 꼼빠스 1일자 보도에 따르면 사망보장(JKK)은 기업 업종별에 따라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보험료율은 0.24~1.74%이다. 산재보상 보험료율은 0.3%이다. 모두 기업이 부담한다. 감액 기간은 정부가 상황에 따라 추가로 3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밖에 연금보장(JP)은 3개월간 30% 분을 납부하면 나머지 70%분은 6개월간 유예한다. 연금보장은 15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보장제도로 회사가 2%, 노동자가 1% 각각 부담하고 있다.

BPJS의 아구스 기관장은 “이러한 우대 정책은 기업의 직원 구조조정을 방지하고 근속 1년 이상 직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종교축일상여금(THR)을 확실하게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언급했다.

노동자의 사회보장제도 중 퇴직 후 지급되는 노후보장(JHT)에 대해서는 이번 인센티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노후보장의 보험료는 회사가 3.7%, 직원이 2.0% 부담하고 있다.

자카르타 경제신문

PSBB 실시 중인 국도, 통행량 최대 90% 감소

인도네시아 공공사업 · 국민주택부는 지난 달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방지책인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을 실시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7개 주 국도에서 24~25일에 측정한 통행량이 실시 전에 비해 최대 90% 가까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를 실시한 국도는 자바섬에서는 반뜬주와 서부 자바주 각 4곳, 동부 자바주와 족자카르타특별주 각 5곳, 중부 자바주 8곳이다.

리아우주는 5곳, 남부 술라웨시주는 10곳이었다. 교통량의 감소폭은 7개 주 평균 68%였다.

가장 감소폭이 컸던 국도는 동부 자바의 응안죽, 끄르또소노(Nganjuk – Kertosono) 간 통행량으로 89% 감소했다. 가장 감소폭이 작았던 곳은 서부 자바주 수방 경계에서 빠마누깐시 경계까지의 구간으로 33% 감소했다.

인니 무역부,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전자서명 도입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22일, 인도네시아 원산지 제품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때 필요한 발행자의 서명과 발행기관의 날인에 대해 무역부 사이트에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무역부장관령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여 수출 촉진을 도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따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이다.

무역부장관령 ‘2018년 제24호’의 3차 개정령 ‘2020년 제39호’를 지난 1일자로 공포, 8일자로 시행했다.

아구스 수빠르만또(Agus Suparmanto) 무역부 장관에 따르면, 우선 자카르타특별주와 동,중부자바주, 서부 자바주 보고르, 반뜬주 땅으랑 등 총 10개소의 발급 기관에 전자서명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94개소의 발급 기관으로 확대한다.

아구스 장관은 “원산지 증명서의 발행자가 재택근무 중에도 발급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며 “수출업체에도 발급 절차 간소화 및 가속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paran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탈 승화전사 날염” 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탈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탈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 paran.kwo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
박 용 상 : 0815 1902 4176

수출 마스크 오더 폭탄 터졌다

세아 · 한세 美서 면 마스크 억단위 규모 수주 생산
한솔도 대량 오더 상담 중 · 중견 벤더 앞다퉈 참여

유도 헤인즈의 에이전트인 PBMS 한국사무소를 통해 세아 · 한솔과 비슷한 규모의 마스크 오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빅3'가 받은 마스크 오더는 주로 부직포 KF80 또는 94가 아닌 GVC 원단에 항균 화학물질을 침지해 도포하는 원단을 사용한 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헤인즈 측은 원단 도포용 항균 침지 화학약품을 미국 화학 업체인 시센트 제품으로 지정해 사용토록 못 받고 있어 이 화학약품 수급이 매우 원활치 못해 마스크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형 또는 중견 의류 벤더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미국과 유럽의 모든 오프라인 유통매장이 문을 닫았고 이로 인해 상반기 오더가 모두 취소되면서 놀고 있는 해외 봉제 공장 라인을 일부 활용하고 있다.

이들 대형 의류 벤더뿐 아니라 중견 의류 벤더들도 앞다퉈 마스크 오더를 받아 기업당 작게는 몇백만 장에서 몇천만 장 단위로 마스크 오더를 해외 공장에서 본격 생산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지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마스크 오더가 쇄도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마스크 오더가 폭탄이 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F80 수준 아닌 원단에 항균 화학약품 도포, 수급 불안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럽에 이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연일 마스크 오더 폭탄이 터졌다. 수량이 몇백만, 몇천만 장에서 억 단위로 늘어나 의류 벤더들의 세워진 해외 봉제 공장의 생산 라인을 가동시키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아상역은 미국에서 직접 원단 마스크 2억 장의 대규모 오더를 받아 해외 소싱 공장에서 생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세실업도 역시 미국 회사로부터 수억 장 규모의 원단 마스크 오더를 받아 해외 의류 소싱 공장에서 생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아 · 한세에 이어 한솔 섬

프레쉬 오더

프레쉬오더 생산
스타일당 3~4개 컬러 1만장 이상
컨테이너 베이스
Mens/Ladies/Girls/Boys
캔슬오더/STOCK : 대량수량매입

+62 858 1369 4992
6shg10@gmail.com
PT SHINHAN GLOBAL INDONESIA

김재훈의 세무상식

재무부장관령 44호 (PMK No.44 / Tahun 2020)

김 재 훈 대표

인니 정부는 코로나 19관련 조세 혜택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3일 공표한 재무부 장관령 23호 (No.23/PMK.03/2020) 을 폐지하고 재무부 장관령 44호를 새로 발표하였다.

개정된 재무부 장관령 44호는 2020년 4월 27일부터 시행 되었다. 이번 시행령은 해당 업종분류코드가 크게 확대되었고, 보세구역 허가 기업도 추가되었다. 또한 년매출액 48억루피아 이하 영세기업에 부과되었던 PPh4(2) 도 추가되었다. PPh21 경우 440 업종에서 1,062 업종 확대되었고, PPh22와 PPN의 경우에도 102개 업종에서 431개 업종으로, PPh25의 경우 102개 업종에서 846개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소득세법 제21조 세제 혜택
(Insentif PPh21 / 근로소득세)

Kode KLU(klasifikasi Lapangan Usaha) Lapmiran huruf A 에 해당되는 업종 또는 KITE로 지정된 회사 또는 보세구역허가(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izin PDKB)를 득한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자가 납세등록(NPWP)을 하였고, 년간 소득이 2억루피아를 넘지 않는 근로소득세는 2020년 4월 과세분부터 2020년 9월 과세분까지 정부가 부담한다. 고용주가 동 재무부장관령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하여 국세청 사이트 경로를 통해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여야 하고 세무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5 영업일 이내 거부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정부령 PP No. 23 /2018 세제 혜택
(Insentif PPh Final Perdasarkan PP No.23/2018)

정부령 23호 요건을 충족한 영세사업자(연매출액 48억루피아 이하)의 경우 종전 매출액의 0.5%의 최종분리과세에 대해 4월과세분부터 9월까지 면제 혜택 부여. 납세자는 첨부 서식을 이용하여 국세청 사이트 경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22조 세제 혜택
(Insentif PPh22 / 수입 시의 원천징수 소득세)

– Kode KLU(klasifikasi Lapangan Usaha) Lapmiran huruf I 에 해당되는 업종 , KITE로 지정된 회사 및 타국으로 재화 반출하는 보세 구역 허가를 받은 회사로서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법인세 면제신청(Surat Keterangan Bebas)을 하여 면제승인으로부터 9월 과세분까지 PPh22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25조 세제 혜택
(isnestif ansuran PPh25 법인세 중간예납)

– KLU Lapmiran huruf N 에 해당되는 업종 또는 KITE로 지정된 회사 및 보세 구역 허가를 득한회사에 해당되는 납세자 대상으로 동 재무부장관령 첨부 서식을 작성하여 국세청 사이트 경로를 통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는 5영업일 이내 요건 미충족시 거부 통보를 하여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액의 30% 를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 (Insentif PPN)

Kode KLU(klasifikasi Lapangan Usaha) Lapmiran huruf I 에 해당되는 업종 , KITE 로 지정된 회사, 보세구역 허가를 받은 회사로서 환급액이 50억루피아를 초과하지 않으면 월별 부가세 신고서에 환급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별도 신청없이 부가세법 9조 4c 낮은 위험율의 과세 대상 기업과 같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적용기간은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이다. 〈끝〉

문의 : kimjhoon@bngconsulting.co.kr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S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재인도네시아 한인 상공회의소 세무분과 사무차장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저서
-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 인도네시아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TEL : 021 522 2739
e-mail : kimjhoon@bngconsulting.co.kr

미세먼지 까지 제거하는 AIR 흡입방식
신개념 유해물질 제거 집진기
에어맥스 클린매트

설치장소
Clean Room/식당/병원/호텔/공장/백화점
빌딩/마트/학교/극장/터미널/관공서/방송국
공연장/박물관/발전소/전시장/은행/지하철

AIRMAX
CLEAN MAT

제품 특징
1. 순간 에어 흡입방식
2. 신발의 미세먼지 차단(눈, 빗물제거가능)
3. 청결하고 깨끗한 업무환경
4. 집진기에 의해 모여진 이물질 처리 용이
5. 외부 충격에 강함

물류대차, 지게차, 주차장 차량출입구 적용가능

별도 공사 없이 시공가능
고객 원하는 치수 주문제작
매트 두께 : 20mm

관련동영상
테스토닉

0811-97-8638
korea_kjj@daum.net
kakatalk ID : dragon88ind
PT.ZEUS Component Indonesia

인도네시아 수출 역군, 한국 봉제업체 … 기술에서 경영으로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인도네시아 한인100년사 편집위원

우리나라 1970~1980년대 산업화를 이끈 효자였던, 섬유 · 봉제와 신발 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으로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노동집약산업으로 대표되는 이들 산업은 1980년대 말부터 생산기지를 동남아로 이전하면서 쇠락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 신발산업과 비슷한 시기에 성장과 쇠락의 궤를 같이 한 봉제 산업 역시 1980년대 후반기 한국사회 민주화에 따른 노동쟁의 증가, 가파른 원화 절상 및 임금상승에 따른 제조비용 상승으로 채산성이 급격하게 악화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을 모색하게 됐고, 대상지로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의 조건을 갖춘 동남아 가운데 인도네시아를 선택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10대 섬유 제조 국가이며 섬유 · 봉제산업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 가운데 하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980년 후반기 높은 고용창출로 노동시장을 이끄는 섬유 · 봉제산업을 대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했다. 때마침 우리나라 봉제기업들도 해외 생산기지 이전을 모색하고 있던 터라 인도네시아 투자는 타이밍이 절묘했다.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제협회(KOGA) 이완주 전 회장은 "1988년부터 한국 봉제업체들은 주로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에 먼저 진출했는데, 이는 앞서 종합상사들이 목재 등 다양한 사업을 인도네시아에서 펼치면서 현지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갖고 있었고, 이런 이유로 동남아국가 가운데 인도네시아를 투자지로 낙점했다"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도 큰 변화를 맞는다. 1980년대 후반기 우리나라 신발 · 봉제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로 대거 생산기지를 이전하자, 1980년대 중반기 1천500명 정도의 현지 한인 수가 1990년대 초에는 1만명으로 크게 증가한다. 1990년 전후로 인도네시아 한인공동체는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큰 변혁기를 맞으면서 인도네시아 경제와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킨다. 대규모 인력이 처음 해외에 파견되었지만, 사전에 현지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고, 작업공정에 대한 인도네시아어 표준설명서가 없어서 현지 직원과 갈등과 마찰을 빚어, 빈번하게 현지 언론에 보도됐다.

인도네시아에 초창기 진출한 우리 봉제기업은 코오롱상사가 투자한 코오롱랑긍(PT. Kolon Langgeng)으로 1987년에 설립해 1988년부터 본격 생산을 시작했다. 코오롱랑긍 이후 진출한 서광인도네시아와 캄파리 인도네시아, 다다인도네시아 등

▲ 자카르타 외곽의 한 봉제공장 전경. [데일리인도네시아 자료사진]

업체들은 당시 자카르타에서 유일한 산업공단인 뿔로가둥 산업공단에 둥지를 틀었다. 이후 한국계 봉제업체의 투자가 속속히 이어지면서 북부 자카르타 딴중쁘리옥 항구 인근 짜꿍 지역에 있는 보세구역인 KBN(Kawasan Berikat Nusantara)과 자카르타 인근 브까시(Bekasi)와 땅그랑(Tangerang), 보고르(Bogor) 지역으로 확대됐다.

1990년대 초반 우리나라가 중국과 베트남과 수교하면서 두 나라는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지로 부상했다. 이를 계기로 신흥 투자지인 중국과 베트남으로 일부 수출 오더(주문)가 이전하면서 인도네시아 봉제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93년 이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인상율이 연간 10%를 상회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비 절감 효과가 낮아진 동시에 물류비용이 더 저렴한 중국과 베트남으로 이전함에 따라 경쟁력을 잃게 된다.

1997년 태국발 외환위기가 아시아를 강타한 이후 인도네시아는 1998년 5월 사태와 외환위기로 정치와 치안이 불안하고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당시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철수했음에도 한국계 기업들은 잔류해 위험과 어려움을 견디고 숨을 고르며 재기의 기회를 노렸다. 이와 관련해 봉제업체 BPG(Busana Prima Global)를 운영하고 있는 박재한 한인회장은 "당시 한국계 업체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공장을 가동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이어와의 약속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회고했다.

2001년 9 · 11테러 이후, 미국 바이어들이 수입선을 중국, 베트남 등지로 옮기면서 일부 한국계 봉제업체들은 또다른 어려움을 겪는다. 일부 미국 바이어들이 수입선을 전환한 것은 인도네시아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교도를 둔 국가이라는 이유였다.

폭풍이 한바탕 지나가면 청명한 하늘이 뒤따른다. 2005년 1월 1일부터 WTO(세계무역기구)의 섬유협정에 의한 섬유 수입쿼터가 전면 해제된 후,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EU(유럽연합) 수출에 경쟁력이 되살아났다. 더욱이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이후 중국의 생산원가가 급속도로 인상되면서 일부 중국 수출주문이 인도네시아로 되돌아왔다.

이 무렵인 2000년도 중반 수출주문이 인도네시아로 몰리면서 세아상역과 한솔섬유, 한세실업 등 한국의 대형 및 중견의류 수출업체들이 대거 진출해 단위 공장당 50개 라인 규모의 대형 봉제공장 신설이 러시를 이루며 업계가 호황을 누렸다. 특히, 세아상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패브릭 밀(Fabric Mill)을 단계적으로 완공해 본격적으로 원단 생산을 가동함에 따라 편직-염색-봉제로 이어지는 일관 생산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좋은 일에는 장애가 함께 따라다니 마련이다. 2000년 이후 개혁시대를 맞은 인도네시아에서는 민주화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경제가 높은 성장을 이어가면서, 복수노조를 전면적으로 허용해 노동계 활동이 활발해졌다. 노동계는 경제 성장에 걸맞는 임금인상을 요구하였고, 심지어 집단위협시위(일명 스위핑)가 공단을 중심으로 벌어져 제조업체를 크게 위협했다. 2002년과 2013년 각각 40% 가량 높은 최저임금 인상 등 지속적인 임금상승으로 봉제업계는 위기를 맞는다. 채산성이 악화되자 우리 봉제업체들은 저렴한 임금을 찾아 서부자바주 외곽 지역인 수까부미와 중부자바주로 속속히 공장을 이전하며 자구책을 마련한다.

인도네시아 섬유 · 봉제산업에서 한국계 봉제업체의 위상은 어떨까?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섬유 · 봉제산업에 꾸준히 투자했으며, 특히 2013년부터 2017년 5년간 대인도네시아 외국인 누적 투자 건수에서 한국 진출 기업이 가장 많고, 투자금액으로는 우리 진출기업의 투자액이 2위를 차지했다.

2019년 기준 KOGA 총 회원사는 286개 업체로 지난 2007년 227개 업체에 비해 25% 가량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봉제 · 섬유 산업의 공식 고용 인구는 약 150만 명 이상이며, 한국계 섬유 · 봉제업 계의 고용 인구는 60만 명 정도이다. 2018년 기준 인도네시아 전체 봉제 · 섬유 수출실적은 130억달러이며, 이 중 30%이 한국계 업체가 수출하고 있다. 봉제 부문만 본다면, 인도네시아 봉제 수출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인도네시아 수출에 기여도가 매우 높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다. 서부자바 주 브까시 소재 봉제업체 SKB 사장 A씨가 2018년 10월 직원 4,000여명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야반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이 직접 이 문제에 관여할 만큼 현지 사회에 파문이 컸다. 한국 언론 보도로 국내에 알려진 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부 등에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적극 공조를 지시했다. A씨는 한국에 거주 중이며 지불해야하는 체불임금과 해고수당 중 일부를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와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제협의회(KOGA)는 SKB의 임금체불 사태로 인한 파문이 현지 한인 기업의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현지 당국과 협의하며 해법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계 봉제 · 섬유 업체의 전망은 장밋빛일까? 한국뿐 아니라 현지 한인사회에서도 봉제산업은 전망이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서 젊은 층의 신규 인력 유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과거 봉제산업의 성장을 일군 고령화된 봉제 장인들이 버티고 있다. 인도네시아 봉제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완주 전 KOGA 회장은 "과거에 봉제는 기술이 중요했으나, 이제는 자동화기계 도입으로 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인도네시아인 봉제 장인 양성을 강조했다.

문효건 전 KOGA 회장은 "1990년 전후로 한국 봉제업계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진출해 생산성이 기대 못 미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제는 한국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직원들은 숙련됐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급 인재로 성장해 각 회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억7천만 인구와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인구구조를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경제 성장과 인구증가 속도에 맞물려 의류제품에 대한 수요가 연간 5~10% 가량 성장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은 외모에 관심이 많은 만큼 패션의류 시장이 크게 성장할 기대된다. 한국 봉제섬유업체가 진출한 지 30년이 넘었다. 이제 한국계 기업들이 수출시장에서 더 나아가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을 주목할 시기다.

[데일리인도네시아]

美 유명 의류브랜드 '제이크루' 코로나19에 파산신청

미국의 유명 중저가 의류브랜드 제이크루(J.Crew)가 4일(현지시간)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제이크루는 이날 버지니아주 연방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형 소매업체로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파산절차에 들어간 첫 사례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16억5000만 달러(약 2조 원)의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제이크루의 소유권을 채권단에 넘기게 된다.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단은 4억 달러의 신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이크루는 젊은 엘리트층이 즐겨 입는 캐주얼 스타일, 이른바 '프레피 룩'(Preppy look)으로 유명하다.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즐겨 입어 더욱 화제가 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08년 10월, 미셸 여사는 방송인 제이 리노의 '투나잇쇼'에 출연하면서 제이크루 의상을 입고 나왔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의 첫 취임식에서도 미셸 여사와 두 딸이 제이크루의 코트, 목도리, 장갑 등을 착용했다.

미셸 여사는 퍼스트레이디 시절에도 공식 석상에 제이크루를 자주 입고 나왔고,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의 두번째 취임식에도 제이크루의 벨트와 구두를 선보였다.

자카르타 주지사 "상황 개선되면 2주 후 PSBB 해제 가능성도"

▲ 인니 경찰이 마스크 미착용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멈춰 세운 뒤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있다.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 자카르타 주지사는 지난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개선되면 준 봉쇄조치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을 2주 후 해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29일자 현지 인베스터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아니스 주지사는 앞서 지난 달 22일 PSBB를 이달 22일까지 약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아니스 주지사는 "감시대상환자(PDP)나 (주 내 1일 당) 사망자 등이 계속 감소할 경우 PSBB를 해제한다"고 말했다.

자카르타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주의 신규 감염자 수는 83명으로 전날보다 35명 감소했다. 이날 사망자는 2명, 회복한 사람은 7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진단키트 부족으로 다른 나라보다 검사가 더디게 진행돼 실제 감염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돼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아니스 주지사는 PSBB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88%, 자가용이 54% 각각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카르타 경제신문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 코로나 영향 '베이비붐' 예상

인니 국가가족계획청 "코로나 기간 가족계획 참여 저조"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2억7천만명에서 더 늘어날 전망이다.

4일 안따라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가족계획조정청(BKKBN)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가족계획 참여가 저조해 '베이비 붐'(출생률 급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스또 와르도요 BKKBN 청장은 "코로나 사태 발생 후 피임기구 사용이 줄었고, 코로나 감염 우려로 대면 가족계획 서비스 참가자들도 줄었다"며 "베이비붐에 따른 인구 문제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BKKBN은 자궁 내 피임기구(IUD) 시술이 지난 2월 3만6천여명에서 코로나 사태 발생 후 3월에는 2만3천여명으로 급감했다고 자료를 내놓았다.

같은 기간 이식형 피임제(임플라논) 시술은 8만1천여명에서 5만1천여명으로, 피임용 주사제(depo shot) 사용은 52만4천여명에서 34만1천여명으로, 피임약 복용은 25만1천여명에서 14만6천여명으로, 콘돔 사용은 3만1천여명에서 1만9천여명으로 줄었다.

정관 수술을 받은 남성은 2천200여명에서 1천100여명으로, 난관 절제술을 받은 여성은 1만3천여명에서 8천여명으로 감소했다.

▲ 인도네시아 가족계획 포스터 [BKKBN]

BKKBN은 그동안 농촌 지역 등에서 피임, 가족계획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교육해 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로 대면 교육이 불가능해지자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마을 의사와 산파를 통한 교육에 공을 들이고 이들로부터 임신 · 출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한편, 서부자바 주 찌안주루 지역의 한 부부는 지난달 30일 보건소에서 딸을 출산한 뒤 '나라 파티마 코로나'라는 이름을 붙였다.

아이의 아버지 람드한 압리아나(32)는 "' 코로나'는 라틴어로 왕관을 의미한다"며 "코로나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코로나19 사태를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 후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부모가 아이에게 '코로나'라는 이름을 붙였다.

필리핀 바콜로드시의 한 부부는 4월 13일에 태어난 딸에게 '코비드 마리'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인도에서는 신생아에게 '코로나 쿠마르', '코로나 쿠마리' 등의 이름이 붙었다.

[연합뉴스]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명함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텍 / 기타

도서출판/인쇄 광개토 PRINTING COMPANY

상상 그 이상의 속도와 퀄리티!

디지틀 프린트 서비스 시작합니다 !

도서출판/인쇄기업 광개토는
고객의 요구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2020년부터 디지틀프린트 사업을 시작합니다.
소량 인쇄는 물론 완벽한 고퀄리티를 제공하고자
디지틀프린트기를 도입해
고객만족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광개토는
지속적인 고객요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고객과 함께 고민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명함 : 컴폼 후 익일배송
- 카다록, 브로슈어외 : 1권부터 가능
- 다양한 재질의 인쇄 가능

제작 문의 : 021 3002 9087 / 0858 9060 0962
pt.kwanggaeto@gmail.com / khong3000@gmail.com

인도네시아 제조업 활동 위축…이렇게 나쁜 적 없었다

▲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 질병관리본부에 납품할 방호복 긴급 생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수요가 약해지고 공급망이 중단돼, 올해 1분기 제조업 생산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15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중앙은행 신속제조업지수(Bank Indonesia's Prompt Manufacturing Index (PMI-BI))가 2019년 4분기에 51.5%에서 2020년 1분기에 45.64%로 하락했다. 45.64%는 지수를 집계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PMI-BI가 50보다 높으면 확장이고 50보다 낮으면 수축을 의미한다.

올 1분기에 PMI-BI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하락했다. 주문물량 지수는 47.28%, 생산물량 지수는 43.1%, 상품 재고량은 46.69%, 인력 지수는 47.63%였다.

BI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둔화되고 공급망이 중단됨에 따라 모든 PMI-BI 구성요소가 하락했다"라고 설명했다.

제조업은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의 19%를 차지한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은 4.97%로 지난 4년 이래 가장 낮았다. 올해 GDP 성장률은 지난 21년 이래 가장 낮은 2.3%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 GDP 성장률이 0.4%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페리 와르지요 BI 총재는 지난 9일 GDP 성장률이 올 1분기에 4.7%가 되겠지만, 정부가 대규모 사회적 제약을 엄격하게 시행함에 따라 2분기 성장률은 1.1%, 3분기는 1.3%, 4분기는 2.4%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는 인도네시아인 5천명 이상을 포함해 전세계에서 18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감염시켰고, 각국 정부는 도시 또는 국가를 봉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펼치면서 공장, 학교, 상점을 폐쇄했다.

이로 인해 공급망이 중단되고 소비자들이 집에 머물면서 향후 고용을 우려해 소비를 줄였다.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GDP 중 제조업 비중은 약 19%이다.

BI는 올해 1분기에 식음료와 담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제조업 부문이 급락했지만 2분기에는 제조업 물량 증가로 제조업 활동이 소폭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활동 척도인 HIS Markit이 집계하는 구매관리자지수(PMI) 추이도 BI-PMI 추이와 일치한다.

인도네시아 PMI가 조사가 9년 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45.3을 기록했다.

BI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정책 시행으로 인해 올 1분기 말에 수요가 급감했고, 수출 판매 급감에 따라 신규사업 유입이 사상 최저치로 감소했다. 동시에 공장 폐쇄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다.

자카르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와 공공장소를 폐쇄하고 사람들의 이동과 모임을 제한하는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을 시행했다.

IHS Markit 소속 수석경제학자 버나드 AW 씨는 PMI 보고서에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이 드러났지만, 정부가 보다 엄격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올 2분기에는 경제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3월 중순부터 국민들에게 집에 머물라고 권고했고, 이후 사람들이 해고되거나 무유급 휴가에 들어가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소비자 구매력이 하락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지사 "르바란 후 자카르타 진입 제한할 것"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 자카르타 주지사는 지난 1일, 이슬람 최대 명절인 르바란(올해는 24~25일 예정) 후 자카르타 진입에 제한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중앙정부가 31일까지 실시하는 귀성 금지에 따른 조치다.

아니스 주지사는 회견에서 "(자카르타 주민들이) 귀성했을 경우에는 르바란 후 곧바로 돌아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엄격한 규제를 책정한다"며 자카르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귀성하지 않도록 호소했다.

또한 아니스 주지사는 코로나19의 감염 방지 대책으로 마스크의 배포와 생필품 지급 등의 사회 지원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1~2일에 북부 자카르타의 일부 지역에서 63만 장의 천 마스크를 배포했으며, 주 전역에 약 2,000만 장의 배포를 계획하고 있다.

현지 매체 드띡닷컴에 따르면, 자카르타 주정부는 수까르노-하따 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서부 자카르타의 공동 묘지에 코로나19 감염 방지 처리를 하고 매장될 사망자 약 1,000여구의 묘자리를 마련했다.

주에서는 감염 여부가 판명되기 전에 사망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으며, 감염 방지 처리를 하고 매장된 시신은 1일까지 1,61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섬유 산업, 해고나 일시 귀휴 189만 명 넘어

인도네시아 섬유협회(API)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로 국내 섬유·섬유제품(TPT) 산업에서는 지난 달 24일까지 189만 명의 직원이 해고(일시 해고 포함)되거나 일시 귀휴(歸休)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자카르타포스트와 인베스터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TPT 산업의 종업원 수는 269만 명으로 약 70%가 줄어든 셈이다.

API의 제이미 회장은 "최근 섬유·섬유제품의 주문 취소가 증가하면서 의류 공장 가동률이 90%에서 5%까지 급감했다"며 "국내외 시장을 잃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6월에 현금 흐름이 막힐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는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 면제, 부가가치세(VAT) 지불 90일간 유예, 수입 기성복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세이프 가드) 적용 등의 우대 조치를 요구했다.

API의 측은 또한 "마스크 등 감염 보호 장비의 생산으로 이행한 기업도 있지만, 그래도 공장 가동률은 70~80%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카르타경제신문

PT. BOSUNG INDONESIA

한인기업과 30년을 함께 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의
차세대 리딩기업으로
한인기업과 함께
성장 할 3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www.bosung.co.id

종이 골판지 생산 / 카톤박스 / 포장용 박스 / 종이 쇼핑백
CORRUGATED SHEET / CORRUGATED CARTON BOX SHOPPING BAG / INNER BOX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 Pasar Kemis Tangerang -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 sales@bosung.co.id Tel : (021) 5935 1001 (hunting)
Fax : (021) 5935-0022 (Shopping bag), (021) 5935 0066 (inner box), (021) 5935 0033 (carton box)

‘코로나19’에 갇힌 해외 생산기지... 지금이 ‘유턴기업’ 잡을 골든타임

코로나19로 글로벌 생산라인이 일시정지됐다. 세계 각국에 흩어진 공장들이 국경 봉쇄, 셧 다운 조치로 손을 놓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해외에 나간 자국기업을 불러들이기 위한 리쇼어링(Reshoring)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국도 빠지지 않겠다는 기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의 유턴을 포함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지원방법을 조속히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봉쇄, 이동금지 조치로 문 닫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생산기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한국이 안전한 생산기지이지만, 생산성이 좋은 생산기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018년 제조기업 국내 유턴계획을 조사한 결과 유턴보다 해외시장을 확대한다는 응답이 77.1%를 차지했다. 이유로는 △국내 고임금 부담(16.7%) △노동시장 경직성(4.2%) △과도한 기업규제 · 유턴 인센티브 부족(각 0.7%)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견해다. 코로나19에 따른 장기 경기 침체를 막고, 글로벌 생산체인이 불안정해질 것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인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진출 기업의 5.6%만 국내로 돌아와도 20조4000억원의 생산 전환이 이뤄지면서 직간접 고용 효과만 13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건설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키를 쥔 부동산, 건축자재와 기계 등 건설 유관산업까지 패키지로 살릴 방안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집중됐던 디스플레이 공장 신축 당시 지역 내 신규 분양 아파트는 최고 청약 경쟁률을 갱신했다. 설비 기능공의 인건비가 최고 15%까지 올랐고, 특수 건축자재기업의 연매출 중 10% 이상이 해당 현장에서 발생했다. 지역 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매매, 전 · 월세 가격도 상승했다. 이는 지방세수 확보, 소비 촉진 효과를 불러온다.

산업연구원은 30일 내놓은 ‘코로나19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는 제조 공장의 유턴 지원 강화 등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해 글로벌 공급망 확대의 위험성을 제어하고 스마트 제조화와 공급사슬 구조개선을 통해 국내 산업생태계의 강건성과 복원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헤지스 20주년 엠블럼

LF의 헤지스가 탄생 20주년을 맞아 디자인 스튜디오 ‘워크룸’과 협업한 엠블럼을 공개했다.

헤지스의 잉글리시 포인터와 강인하지만 부드러운 아치형 곡선의 체형을 따라 숫자 20을 조합해 헤지스가 맞이하는 20주년의 의미를 친근하고 위트있게 표현, 키 컬러인 네이비, 옐로우, 화이트로 정체성을 강조했다.

헤지스는 20주년 기념 엠블럼을 입힌 다양한 굿즈를 하반기 출시, 매장 VMD, 쇼핑백 등에 적극 활용하며, 오는 27일까지 LF몰내 헤지스 20주년 엠블럼 론칭 기념 기획전10% 할인과 선물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SK의 기술과 하나스타의 노하우로 완성된
클라우드 영상보안 시스템 - HS View

HS View를 놓으세요
이제 마음 푹 놓으세요

HS View, 이런 사업장에 권합니다!

- 보세 구역내의 수출입 통제 관리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 곳
- 도난/사고 예방과 증빙을 위한 고품질 영상 데이터가 필요한 곳
- 지능형 영상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곳
- 프랜차이즈, 콜센터 등의 다지점 사업장
- 합리적인 가격의 신규 설치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

HS View, 이것이 다릅니다!

일반 CCTV	VS	HS View
잦은 해킹으로 인한 영상노출 위험	보안/기술력	전문 방화벽이 작동하여 해킹의 위험에서 안전
본체 또는 녹화장비	영상저장	IDC 클라우드 서버
고가의 초기구축비용 유지보수 비용	비용	구축비용 없는 월 과금 방식

영업문의 : 0811 9936 516 / 0811 805 606
기술지원 : 021 4000 2436~9

하나스타의 새로운 스타!
HS 뷰 출시!

Cloud CCTV HS View

2019년 가입 고객사를 위한 하나스타의 스페셜한 혜택 :
설치비 무료 + 월 사용료 최대 20%할인 + 무료 테스트 3개월 제공

www.hanastar.net.id

CWI ERP

www.cyberworld.co.id

한국의 전문개발업체와 함께 개발한
SaaS 기반 ERP

세관 Inventory, 경영분석 지원까지
다양한 패키지

효율적 회계 관리
회계 자료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 정확하고 효율적 회계 관리가 됩니다

정확한 자재 관리
IT INVENTORY(보세 구역 전산 자재) 시스템 요구 사항을 부합하며 자재 관리가 편리해 집니다.

PC한대 구매가격으로 세관 IT Inventory 시스템 사용 가능
2019년 특별 프로모션

www.cyberworld.co.id
데모 사이트

적지 적소성
CWI ERP로 자료 관리를 하여 적시 적소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 분석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경영 분석에 큰 도움을 줍니다.

복잡한 ERP, CWI ERP로 해결하세요!

- 까다로운 인도네시아 세관 승인 획득완료
- 중/소규모부터 메이저급 봉제회사까지 사용가능한 Customizing
- 프로모션 기간 무료사용, 분할납부 등 다양한 가격 옵션 제공

견적 요청 / 데모 신청
sales@cyberworld.co.id

주요 브랜드 2020 광고 촬영 스토리 (14)
당신의 봄 옷장을 채울 옷은?

모조에스핀

모조에스핀은 첫 눈에도 강렬한 인상을 주는 바바라 팔빈을 모델로 선정했다. 바바라 팔빈은 찬란한 지중해 햇살이 가득한 스페인 남부 말라가에서 화보를 촬영했다. 이번 시즌 테마 '숲의 소리(Bruit de la Foret)'에 맞춰 자연이 주는 편안한 분위기를 표현했다.

와 린넨으로 자켓과 원피스를 완성했다. 색은 단순한 베이지, 흰색, 검정색과 한 눈에 들어오는 민트와 브릭오렌지를 썼다.

라인

라인은 이번 여름 평범한 포멀룩을 재미있게 디자인했다. 여름 컨셉 'It's Me(이게 나야)'를 드러낼 수 있는 소재로 탄탄하거나 부드러운 실루엣을 나타냈다. 여름 트위드

H&M

생동감 넘치는 야생동물을 묘사하는 엠마 제인은 H&M과 손잡고 어린이 옷을 디자인했다. 엠마제인 시그니처 기법인 과슈 기법으로 동식물 특징을 독특하게 그려냈다. 엠마제인 어린이 컬렉션은 티셔츠와 점프수트, 드레스로 구성됐다. 우븐 비스코스와 면을 섞은 소재를 썼다

시스템옴므

시스템옴므가 그려내는 2020년 여름은 '원더랜드'다. 여름 판타지와 흑백 도시가 공존하는 세상이다.

시스템옴므 모델 지코는 화려하고 실용적인 옷과 흑백톤의 도심 리조트룩을 번갈아 입으며 카메라 앞에 섰다. 지코는 자신이 해석한 원더랜드를 화보로 표현해냈다.

도서출판/인쇄 광개토 PRINTING COMPANY

상상 그 이상의 속도와 퀄리티!
디지틀 프린트 서비스 시작합니다 !

- 명함 : 컴폼 후 익일배송
- 카다록, 브로슈어외 : 1권부터 가능
- 다양한 재질의 인쇄 가능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명함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텍 / 기타

제작 문의
021-3002-9087
0858-9060-0962
pt.kwanggaeto@gmail.com
khong3000@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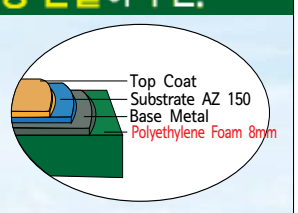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쾌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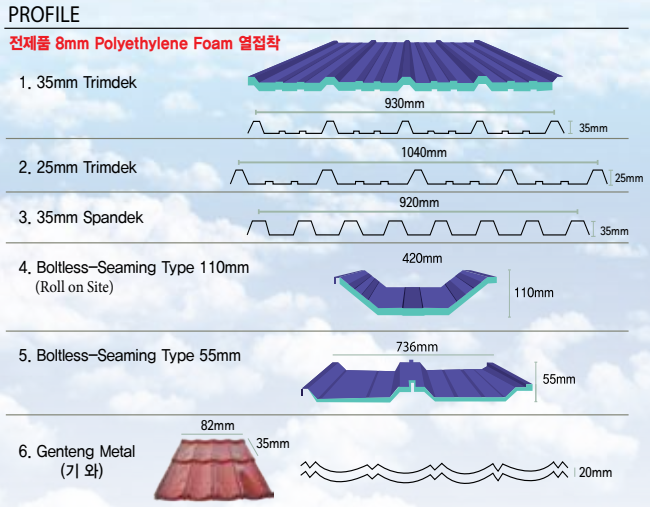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 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제7회 코리아 텍스타일 디자인 어워드 수상작 · 입선작을 상품화에 추천합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와 창간 39주년을 맞은 전통의 전문매체인 한국섬유신문의 산학협력에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섬유신문이 전개하는 지상전은 섬유 · 패션 · 의류산업의 뛰어난 디자인 발굴 · 육성과 관련업계에 신선한 디자인 연결을 통해 공동 협업 발전하는 윈-윈 전략입니다. 전공학생들에게는 용기와 도움을 주고 필요한 디자인을 공급받으시는 메이커에는 신선한 충격으로 매출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지 지상전은 수상 · 입선작 100여점을 50회에 걸쳐 매호 2점씩 소개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전공학생들 작품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수요 메이커에는 다양한 작품 선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상담 : 김선희 부장
02-326-3600

*코리아 텍스타일 디자인 어워드(Korea Textile Design Award) 출품작의 모든 디자인 저작권은 주최측(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 한국섬유신문)에 있습니다. 무단 도용시 민 ·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품명 : 약속하고 떠난 봄을 기다리며 이현미 作

▲ 작품명 : 오염된 나무속에서의 영양공급 김대성 作

마스크 필터 손상 없는 항바이러스 스프레이 개발

벤텍스, 마스크 표면에 7일간 생존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멸

▲ 홍콩대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스크 표면에서 최대 7일간 생존한다. 벤텍스는 마스크 필터 손상 없이 표면의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항바이러스 스프레이 제품을 개발했다.

섬유소재 개발 기업 벤텍스(대표 고경찬)가 개발한 항균 스프레이가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를 유지함이 확인됐다. 항균마스크의 필터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재사용이 가능해 마스크 대란 해결과 감염 차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OTITI 시험연구원 테스트 결과 벤텍스 항균 스프레이는 KF 보건용 마스크 필터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으며, KF94 마스크 표면에 항균스프레이 도포 후 필터 성능을 측정한 결과 분진포집율은 98.44%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실험에서는 마스크 표면에 도포 후 한 달이 경과된 후에도 폐렴균이 99.9% 사멸됐다. 벤텍스 관계자는 "홍콩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마스크 위에서 최대 7일까지 생존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더라도 마스크 표면을 만지면 감염의 위험이 있다. 마스크 필터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표면에 항바이러스 효과를 유지하는 스프레이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테스트에서는 항바이러스 스프레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동일한 RNA 계열인 인플루엔자A 바이러스를 99.99% 제거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항바이러스 스프레이는 해외시장에서 반응이 폭발적이다. 최근 일본에 100만개를 수출한 데 이어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와 수출을 논의 중이다.

벤텍스 관계자는 "코로나19사태로 대한민국의 검역과 방역 체계가 세계 모든 나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헬사크린 항바이러스 스프레이는 과학기술통신부 주관 IR52장영실상을 수상한 제품으로 항바이러스는 물론 항균, 포름알데이드까지 제거하는 기능을 갖는 바이오 신물질이다.

中 선전 인터텍스 展, 7월 열려

새 전시장으로 이동
2000여 업체 참가 예정

중국 선전 인터텍스타일 전시회가 올해 새로운 전시장에서 새롭게 브랜드화 돼 열린다.

주최측 메쎄 프랑크푸르트 홍콩에 따르면 선전 인터텍스타일 전시회가 2020년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선전 세계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6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전시 면적 내 약 2000여개의 참가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2019년에는 1065개사가 참가했었다.

전시회는 2020년부터 Yarn Expo, CHIC, PH Value 3개 전시회와 함께 열린다. 이는 중국 남부 시장의 미드 소싱 시즌을 위한 포괄적이고 편리한 플랫폼이 될 예정이다.

선전시는 중국 그레이터 베이 지역(GBA)의 주요 도시다. GBA는 중국 정부가 선전, 광저우 등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묶어 세계적인 혁신 경제권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새 전시장은 공항과 항구에 접근이 용이하고 홍콩 바잉 사무실들과 중국 제조사들에도 가깝다. 아세안 지역의 주요 의류 생산 국가들과도 가까이 위치했다.

"중국 선전 인터텍스타일은 오랫동안 중국 남부지역에서부터 동남아시아까지 이르는 주요 의류 제조 업체에 대한 접근점을 제공해 왔다. 기존 전시회장에서 새로운 전시회장으로 이동해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편리한 장소에서 더 많은 성장을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웬디 웬 메쎄 프랑크푸르트 홍콩 법인 상무 이사는 전했다.

불 꺼진 美 유통매장 곧 재개

멈춰선 섬유의류 수출 공급망 · 수요 곧 정상화 임박
5월 하순부터 부문 개점, 6월엔 전국 매장 활짝 열 듯
대형 바이어, 폴 아이템 곧 발주, 홀리데이 장사 급팽창
무차별 오더 캔슬 콜스 비난 일자 벤더와 협상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쇄했던 미국의 유통매장이 5월 중순 이후 부분적으로 영업을 재개하기 시작해 6월부터는 대부분 정상 영업에 복귀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바이어들이 올해 스프링 썸머 장사를 포기한 데 반해 폴 아이템을 당초 예상의 70%까지 벤더들에게 물량을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3분기 정상 활황을 시작으로 연중 가장 큰 대목인 올겨울 홀리데이 시즌 장사는 폭풍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준비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매장 폐쇄와 함께 거래 의류 벤더들에게 무차별 오더 캔슬, 선적 캔슬의 '갑' 질을 자행해 거래 벤더들은 물론 본지를 필두로 각국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온 미국의 대형 유통바이어 콜스 측이 최근 비난 여론을 의식해 거래 벤더들에게 불가항력적 상황이었지만 무리한 캔슬 행태에 따른 시정 여지를 두고 협상을 시작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본지가 의류 벤더와 원단밀, 바잉에이전트 등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뉴욕을 비롯 미국 전역에서 월마트와 타겟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 모조리 유통 매장을 닫았던 미국 내 오프라인 매장이 5월 하순부터 부분적으로 문을 열고 6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정상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종 코로나19 감염으로 금년 봄 · 여름 장사를 포기한 바이어들이 폴 아이템부터는 정상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계획한 목표보다 70% 선에서 의류 오더를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폴 아이템부터 본격 워밍업에 들어간 미국의 크고 작은 유통 바이어와 디자이너 브랜드들은 3분기부터 시작해 올겨울 홀리데이 대목 시즌에 소비자들의 보복 구매가 급증할 정도로 활황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움직임 속에 지난 3월 미국 대형 의류 바이어 중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의류 벤더들에게 발주한 모든 오더에 대해 캔슬 통보를 하고 아무런 라이어 빌리티도 주지 않은 갑질 횡포를 저지른 콜스가 최근 태도를 바꾸기 시작해 주목을 끌고 있다.

콜스 측은 거래 벤더들에게 생산 중이거나 생산 준비 중인 오더뿐 아니라 생산 완료된 완제품 선적까지 중지를 요청하며 이 모든 원인을 천재지변 같은 코로나19에 전가하며 아무런 책임과 배상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거래 벤더와 원단밀 측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또 본지가 가장 먼저 콜스의 '갑' 질에 대해 대서특필 비판 기사를 내보내고 다른 일간 언론 매체들도 이같은 사실을 기사화하는 등 여론의 뭇매를 맞자 최근 오더 캔슬에 따른 상호 협상을 통해 논의하자고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콜스 측의 일반적인 오더 캔슬의 갑질에 벤더와 언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콜스의 이미지 추락과 향후 거래 과정에서 불거질 악재를 의식해 지난주부터 상호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자고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콜스 측의 일방적인 오더 캔슬의 갑질에 벤더와 언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콜스의 이미지 추락과 향후 거래 과정에서 불거질 악재를 의식해 지난주부터 상호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자고 한발 물러섰다는 것이다.

콜스와 거래하고 있는 한국 벤더들의 무차별 오더 캔슬과 선적 중단으로 한국에 벤더들만 수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은 데 대해 천재지변을 들어 무차별 캔슬 작전을 벌였으나 이것이 앞으로 부메랑이 돼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콜스 측은 일방적 오더 캔슬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만약 비분강개한 한국 벤더들이 공급을 거절할 경우 대체 공급처가 마땅치 않아 향후 영업 전략에 막대한 피해가 뒤따른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의식하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볼 때 코로나19로 미국 오프라인 매장이 셧다운 돼 공급망과 수요가 멈춰선 전대미문의 사태를 5월 한 달이 지나면서 점차 정상화를 향해 본격 움직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